

중국 - WTO 가맹으로 수출 급증

질적 발전은 시급한 과제

중국은 2001년 말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정식회원으로 가맹하였다. 따라서 2002년에는 수입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국 섬유산업은 정부의 각종 보호에서 점차 벗어나 세계의 수출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가맹으로 여러 선진수입국도 쿼터나 관세 등의 규제를 풀게되어 중국의 수출이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몇 개의 쿼터를 개방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중국은 세계의 무역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나, 새로운 수출 환경에서의 첫 해인 2002년은 WTO 가맹의 플러스 측면이 크게 작용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섬유수출은 2002년 초에는 연간 55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였지만 연간 6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섬유산업의 이익도 연초에는 250억 위안(元)을 예상하였는데 연간 300억 위안이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섬유생산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 전년에 비하면 15% 이상의 증산이 예상되고 있다. 생산에 대한 판매비율도 97%를 초과하고 있으며, 화섬업계나 어패럴업계는 99%에 이르고 있어, 전년부터 이월된 재고도 처분하였음을 뜻하며, 수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산 면화의 높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면화의 수입규제가 완화되자 중국산 면화가격도 국제시세수준으로 인하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면방직품은 국제경쟁력을 되찾게 되어, 수출에 있어서 면사는 63%, 면직물 생지는 23% 증가하였다.

중국의 무역이 자유화되자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아주 심하게 되어 중국의 수출단가는 전년과 비교하여 많이 낮아졌지만, 중국제품의 “고품질 · 저가격” 즉 저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좋다는 평이 국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출증대가 가능하였다고 본다.

중국의 품질향상 추진은 2002년도에 있어서 10월까지의 설비투자액이 70억 위안을 약간 밑돌고 있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8%나 증가하고 있다. 섬유기기의 수입에서는 2002년 10월까지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6억 달러를 초과하여 2002년도의 연간 수입실적은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셔틀리스직기의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85%나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키자,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쿼터를 폐지하였던 품목에서 마찰이 생겨 쿼터를 부활시킨 사례도 있어 중국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의 업계 내에서도 가격경쟁보다는 품질로 경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좌우지간에, 중국이 WTO에 가맹함으로써 섬유산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03년에는 2002년의 업적을 바탕으로 그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쟁하게 되므로 업계는 구조개선, 신상품개발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